

11월호

Contents

늦가을의 농구장 나들이	2
12차 집단ILP 영화관람 “오기스펙터”	4
아시아태평양장애인 대회를 다녀와서	6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8
외화모니터링 후기	10
나의 실습생활	12
장애인을 이용한 명의도용 범죄	14
면역력 높이는 비타민D 충전 레시피	16
이달의 정보	18
장애인파파라치	20
이달의 시	22
외원가입	23
광고	24



늦가을의 농구장 나들이

박계형



농구장 안에서 단체로 한 컷

지난 10월 27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는 잠실학생체육관으로 농구경기 관람을 나섰다.

이날 경기는 서울삼성 썬더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였다. 강북센터에서는 이용자 13명을 포함한 15명이 참가했다.

이날의 경기 결과는 서울 삼성 썬더스가 일방적인 응원에 힘입어 창원 LG 세이커스를 큰 점수 차로 이겼다.

이번 집단자립생활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맞추어 농구관람을 진행하였고 스크린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해오는 영화와는 달리 관중과 호흡할 수 있는 농구는 쌍방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경기 시작 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앉아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는 것과 경기 중에 환호와 응원을 직접 보며, TV와는 달리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와 살아있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경기 전 행사



쿼터 종료 이벤트

쿼터마다 코트 안으로 나오는 치어리더들과 관중의 이목을 끌기위한 많은 이벤트를 실시하여 볼거리가 많도록 한 것이 보는 스포츠로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서울 삼성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페어플레이 정신을 세기며 열심히 경기를 진행한 창원 LG의 패배는 아쉬웠지만 인터셉트와 슛이 안타깝게 들어가지 않는 등의 플레이가 있어 좋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의 흐름을 따라 한눈을 팔수 없이 집중할 수 있었다.

농구경기에 참여해준 이용자들은 이번 집단자립생활프로그램이 마지막이어서 아쉬워하는 느낌을 주었으며, 농구 외에도 축구, 배구 등 다른 스포츠경기도 관람할 기회가 있으면 하였다.



간식 타임



열심히 봐야지

12차 집단ILP 영화관람 “007스펙터”

김소연



11월 18일 11시30분에 스텝들은 사무실에서 노원 롯데시네마에 도착했습니다. 영화 관람 시간은 오후2시부터인데 12시에 회원들과 모여서 점심(햄버거, 콜라)를 사서 회원들이랑 나눠 먹어서 그런지 꿀맛이었습니다.^^

2시 영화를 기다리기 위해서 회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영화 상영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고 영화입장권 확인한 후 영화관으로 입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 잡는데 주위가 어수선해서 복잡했지만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자리까지 안내해 주셔서 쉽게 자리를 찾아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장르가 액션이라서 기대했고 미리 예고편을 보고 와서 더 기대되었습니다.

영화 내용을 잠깐 얘기하자면 총알 세례 속에서도 맞지 않는 주인공과 어디를 쏘든 맞는 엑스트라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했습니다. 스펙터와 제임스 본드의 과거를 알기



위해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찾기 위해 시작부터 007은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멕시코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총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 쫓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멕시코 전통 축제인 ‘죽은 자들의 날’을 배경으로 촬영된 오프닝 장면은 성대하고 장엄한 스케일이 돋보이며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어우러져 색다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제임스 본드가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 몸을 던지면서까지 그 여자를 끝까지 구했고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마쳤다. 총소리가 커서 중간 중간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흥미진진하게 관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스파이류 액션무비를 좋아하는데 정말 재미있게 본거 같습니다.

영화 관람이 끝나고 회원들과 단체 사진 찍고 사무실 복귀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99701>

아시아태평양장애인 대회를 다녀와서

허성현

2015년 11월 4일 (수) ~ 2015년 11월 7일까지 인천 스카이라리조트에서 아시아태평양장애인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제3차 아태장애인10년 이행을 위해 아태장애인 네트워크 APDPO United의 제4회 컨퍼런스와 2015 아태여성장애인리더십포럼이 함께 개최되어, 각국의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4일~ 6일까지 3일간 참석하였다.

첫째 날인 4일에는<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권리협약의 여성장애인분야 이행현황 및 정책공유>,<여성장애인 정책솔루션 제안>,<아태여성장애인네트워크 형성 및 체계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총 3가지 섹션을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Side Event로 <편의시설증진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 홍현근 국장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BF인증팀장의 강의가 있었다. 첫 섹션에서는 네팔, 필리핀, 키스키르스탄, 미얀마, 한국 등 각국의 여성장애인의 현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필리핀에 Josephine devera 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 주제발표를 통해 각국의 장애판정기준, 문제점, 법적, 제도적 장치, 각 나라의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법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구지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권순기 대표의 <한국의 여성장애인 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현황과 정책>, 일본 DPI 회장 히라노 미도리 씨의 <일본의 여성장애인 활동, 정책, 법>, 호주 사만다 씨의 <호주여성장애인당사자 활동에 관한 솔루션> 등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권순기 대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상황과 이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우리보다 장애인복지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호주여성장애인들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있었다. Side Event<편의시설증진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에서는 건축학적 관점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 매우 의미가 있었다. 주제발표 외에도 환영회에서 성악가들의 노래와 현악연주공연을 통해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서 정말 굿~~이었다.

5일에는 세계여성분과위원회장을 선출하였으며 위원회장으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대표가 당선되었다. 이후 조별로 여성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국제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후에는 각 조마다 선출된 대

표가 나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보다 토론을 한 후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수업은 훨씬 흥미가 있었다. 또한 <범 장애협력과 권익옹호>를 주제로 유엔권리위원회 김형식위원의 기초강연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책솔루션>을 주제로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몽골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 또한 각국의 장애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Side Event로는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니즈파악>을 주제로 이남순 KOICA 민관협력팀장, 조영인 한국DPI국제협력팀장, 정우석 한국척수장애인협회과정의 발표가 있었다.

6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UN CRPD 이행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고, Side Event로 <UN CPRD 제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의 이행을 위한 촉구 메시지>를 주제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 황백남, 강현옥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재익 굿잡센터 소장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장과 임완수 커뮤니티매핑센터장의 <웹메핑 장애인당사자가 확장해 가는 접근가능한 지구> 주제발표 및 강의를 있었다. 각 강의, 주제발표가 다소 어렵긴 했으나 알찬 내용들이어서 좋았다.

이번 아태장애인컨퍼런스는 영어로 강의나 주제발표를 하는 분이 있어 다소 어려웠지만 외국인과 장애관련 주제를 가지고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왔으면 한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다녀와서…….

이영훈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강원도 원주 백운체육관에서 10월 28일~10월31일까지 3박4일간 휠체어펜싱 종목 대회가 열렸다.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춘천 원주 속초 등 38개 경기장에서 개최하여 기량을 겨뤘다고, 이번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체전에 이어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개최

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강원도에서 장애인체전이 개최되는 것도 처음이었다.

이번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등 단체 9종목과 육상, 수영 등 기록 종목 7개. 유도, 태권도 체급 2종목과 펜싱, 탁구 등 개인단체 종목 8개 등 26개의 전시종목을 비롯해 개인 바둑을 합해 27개 종목에서 전국 17개시 도시 선수 5,247명과 임원 2,440명 등 총 7,687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서울특별시장애인펜싱대표로 감독 박동렬, 선수 김종환, 이영훈 선수로 결성해서 참가하게 하였고, 첫째 날 펜싱장비 검사를 마친 후 수속을 향해서 차를 타고 에이치원주 숙소 가는 길은 10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에 그림 같았다. 우리가



육을 에이치원주 숙소는 모텔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 의외로 깨끗하였고 무엇보다 화장실에 턱이 없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시설이 좋았다. 처음엔 방을 두 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방이 생각보다 넓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방 하나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남자 3명에 휠체어 두 대까지 3박4일간 숙소에 스트레스 없이 경

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각자 개인 짐을 풀고 저녁시간이 되어서 간단한 분식으로 먹기로 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구 잠을 자라고 하는데 강원도라서 날씨가 서울보다 추웠다 방에 난방이 안돼서 카운터에 물어보니 아직 난방을 공급을 안 해주다구 한다. 3일간 추위에 떨면서 생활해야 하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졌다. 그러게 지내고 경기 첫째 날 플러레 경기시작으로 대회 일정이 진행되었다.

플러레 김종환 선수 B등급에서 3/4위전에서 탈락하구 또한 이영훈선수도 플러레 A등급 3/4예선전에서 탈락을 하였다. 열심히 경기에 임했지만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통해서 기량을 향상시키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원주의 추억들 잊지 않도록 담아갈 수 있어서 고맙다. 말하고 싶다.



강북구 모니터링 후기

강북구의회 모니터링을 마치며

활동보조인 황성길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한 강북구 의회모니터링을 생전 처음으로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대해서 먼저 센터 담당자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평소에 구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상정이 되어 회의가 진행되며 가결 또는 기각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지내 왔지만, 이번기회에 조금이나마 의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 알게 되어서 비로소 구 시민으로서 나의 존재감이 나 참여의식에 대해 자긍심을 느꼈다. 생각보다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구에 관한 일들이 진행 되었고 생각보다 디테일한 면도 있었으며, 대충 훑어보는 식의 진행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이번이 처음이라 나는 참여하는데 목적을 크게 두기로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언건 중에서 장애인 관련 안건이 생각보다 적고 구의원들도 장애인 문제를 포함한 복지 안건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알고 내심 아쉬웠다.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는 자신감 있게 의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기회를 통해 구의회에서 주로 어떤 것들의 안건이 올라오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소장님 이하 여러 담당 선생님에게 감사드리며, 구의 주민으로서 참여의식을 가르쳐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의회모니터링에 같이 참여한 여러 동료선생님들과 동료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을 적극적인 힘으로 주장할 때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번 의회모니터링에 참여한 본인 외 모든 동료 분들과 센터 담당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

모니터링을 마치며

이지숙

이번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그동안에 몰랐던 구의회 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뜻 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의원들이 의원회의를 하는 모습이라던지 장애인의 문제를 더불어 복지안건에 사후 방안도 없고 질의문답 또한 너무 성의 없게 진행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내년 2016년도에는 진정으로 장애인을 생각하고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선출 되었으면 한다. 그 의원들이 중증장애인이라면 더 좋겠다. 우리의 마음을 한층 더 깊고 넓게 해야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모니터링을 마치며 김두용

2015년 본회의 모니터링 과정을 잘 보았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러분과 진지한 회의와 토론을 함으로써 그동안 몰랐던 강북구 시민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음에도 이런 의회모니터링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안건들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쉬웠던 점으로 남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의원들에 성의 없고 준비성 없는 태도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 수 가 없었다는 점입니다(다음엔 꼭 자료를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들 중 중증장애인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마치며 장민정

장애인들의 의견이나 설문 조사지들을 회의 중에 참고자료로 많이 이용하였으면 한다.

모니터링을 마치며 안소율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직원으로 일하는 친구 덕분에 돈도 벌고 의회모니터링이라는 의미 있는 사업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장애인조례가 당연히 있을 거란 생각으로 참석하였거늘 장애인조례는 없었다. 하지만 장애인 조례는 만들면 되는 것이기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말이다.

나의 실습 생활

이형우

11월 2일, 오전 8시 57분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꾸뻑꾸뻑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하 강북센터)의 문을 연 지 벌써 삼 주가 지났습니다. 삼 주의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했을까, 실습 전 각오, 그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고 있는 것인가, 혹여 기관에 피해를 주진 않았을까 이러한 많은 고민이 머릿속에 교차되는 것은 비단 제가 소심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소장님 이하 기관 선생님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상냥함을 약 삼 주 동안 봐왔기 때문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많은 반대를 했던, 아니, 현재까지도 많이 의심적어 하시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처음 강북센터에서 실습장에 들어오는 일은 사실 설렘만큼 걱정도 컸습니다. 더불어, 현장에 대한 호기심도 컸습니다. 과거 복지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국내외 봉사활동을 다니며, 사회복지 현장, 이용자를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했던 것이 과연 가벼운 오만일까, 감출 필요 없는 자신감이었을까 확인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역시 쥐뿔,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복지관과 자립센터의 차이점 조차 제대로 몰랐음을 부끄럽게 고백해봅니다. 이런 백지의 상태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귀동냥으로 듣는 것도 제겐 새로운 지식의 지평선을 넓히는 일과 같았으며,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이런 백지의 체계, 많은 시간을 들이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참으로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외부터 신문배달, 전단지 배포, 인형탈을 쓰는 아르바이트, 술집, 고깃집, 학교 아르바이트, 일반 서무 아르바이트 등 대충 생각해도 제 손과 발을 다 써도 그 수가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피했던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콜센터’ 업무입니다. 평소에도 유선으로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심히 (심지어 여자친구에게도)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76명의 활동보조인 만족도를 물어보는 작업은 얼굴로는 들어낼 수 없는, 등에 식은땀이 나는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즐겁게 사람들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007 영화’를 본 ILP 역시 기억에 남는 업무입니다. 사실 ‘007 시리즈의 영화를

'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장르의 영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역시 재미없었습니다. 두 시간 반의 상영시간 동안 제 눈이 온전히 떠있던 시간은 두 시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 제일 앞 줄, 두 번째 줄에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며 누구보다 재밌게 영화를 보는 ILP 참여자들을 보며, 영화를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열심히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다시 생각해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만). ILP를 통해, 재밌는 영화 선택의 중요성(^)과, 비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 본 하루였습니다. 후에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화생활 관련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 활용,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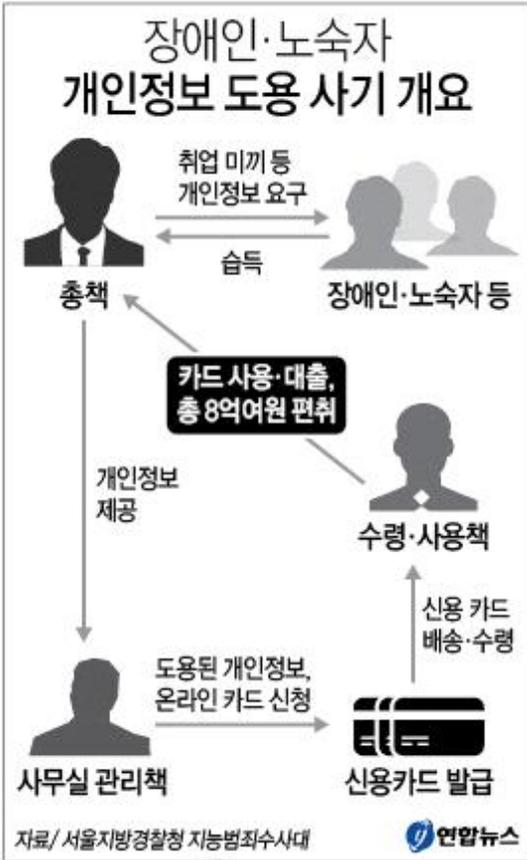
사실 글을 쓰는 이번 주 외에도 다음 주에도 기관에 실습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끝인사를 드리기에 다소 어색하지만, 제가 마지막 날 갑자기, “제가 끝인사를 하겠습니다!” 할 수 없기에, 본고를 빌려 끝인사를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너무나도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를 넘치는 소장님을 보며, 과거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의 미팅이 떠올라 웃음이 나오곤 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제품을 팔아야 하는 전직 회사처럼 긴장되고 치열한 모습과 반대로 매우 즐겁고, 마음이 편해지는 미팅과 편안한 업무지시는 그룹 내 리더의 역할이 집단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업무관련, 실습기간 동안 정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국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역시, 사기업처럼 시스템과 꼼꼼함,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감사한 삼 주였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지만 늘 바로 기관 옆에 사는 저보다 늘 빨리 오시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팀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난 실습기간 동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북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약 사 주간 실습생 신분으로 지냈던 사람이 아닌,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을 이용한 명의도용 범죄

이하용



최근 신문을 읽다보면 종종 장애인을 이용한 명의 도용 범죄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 사건을 보자면 장애인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명단을 꾸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90억 원의 중증장애인 생상품 수의계약을 납품 받았고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 장려금까지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지하철역 자동판매기와 매점 운영권을 따낸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1살 임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 등은 지난 6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증명서를 도용해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5~8호선 지하철역 승강장 통합매점과 음료자판기 운영 입찰에 응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자판기 매점 상당수를 임 모씨처럼 명의만 빌려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부동산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공급받은 아파트는 웃돈을 받고 투기꾼들에게 팔아 넘겼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부동산 브로커 40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장애인협회 전 지회장 56살 전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김포 장기지구 아파트의 무주택 영세 장애인 특별공급부분 24가구를 빼돌렸다. 장애인 협회 간부와 짜고 분양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는데 이 서류들을 이용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고 청

약권을 얻은 다음 옷돈을 주고 되팔았다. 한 가구에 500만 원에서 2,000여 만 원씩 옷돈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청약권을 전매하기 위해 건설사 직원을 매수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매달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갑자기 면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기도 하였다.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가 명의 도용당해 돈을 갚아야 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은 한통화의 전화로도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금융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경우는 대책 방법이 없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 증가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2일에도 김 씨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지적장애 1급인 이 아무개 씨가 A 씨 등 모르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 통신사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이동통신이용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통신사 대리점 판매 직원들은 이 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A 씨의 말만 듣고 최고가 휴대전화를 판매했을 뿐 아니라 고액 요금제에도 가입시켰다. 통신사는 이 씨가 성인이고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지적장애 1급인 이 씨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며 이 씨가 휴대전화 이용요금 1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범죄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정부가 민생안전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본인의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않아야 하며 달콤한 유혹에 혹여 쉽게 자신에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노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내 명의를 도용된 것 같다면 한 치에 망설임도 없이 사이버수사대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내 생각은 좋은 나라란 의심할 수 없도록 정직이 최우선인 나라다.

자료출처-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965>
http://www.ytn.co.kr/_ln/0103_200812031834369999

이미지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25170407864>

[글은 본 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면역력 높이는 비타민D 충전 레시피

전난희

야외 활동이 적은 현대인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가 있다. 바로 '비타민D'. 비타민D는 햇빛을 받아야 체내에서 합성된다. 따라서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직장인들,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생활 패턴은 비타민D 부족을 부른다.

비타민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골다공증, 구루병 등 뼈 질환과 결핵,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면역성 질환 예방을 돕는다. 게다가 항암 효과도 있어 최근에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요즘은 비타민D를 멀티비타민제로 쉽게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음식을 통해 비타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입을 모은다.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비타민 D 충전 레시피.

연어 샐러드 피자



연어나 고등어, 참치 등의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D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 재료들은 오메가3도 함유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재료

연어 통조림 1캔, 토마토 2장, 토마토소스 2큰술, 모짜렐라 치즈 1/2컵, 샐러드 채소 1줌, 발사믹 드레싱 1큰술

만드는 법

1.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또띠아를 올린후 토마토 소스를 펴바른다.
2. 1번의 또띠아 위에 피자치즈와 연어 2/3 분량을 올리고, 또띠아로 덮어 약한 불로 2~3분간 익힌다.
3. 그릇으로 옮긴 또띠아에 샐러드 채소와 나머지 연어를 올린 다음 발사믹 드레싱을 뿌려 완성한다.

계란 우유죽



계란과 우유는 둘다 비타민D가 풍부하여 같이 먹으면 더 좋다.

재료

계란 1개, 우유 1컵, 식빵 2장, 찬밥 5큰술, 물 4컵, 올리브오일, 땅콩가루 1큰술, 시나몬가루 1/2작은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식빵은 잘게 썰고 찬밥은 전자렌지에 데워 준비한다.
2.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노른자에 붙은 알끈을 제거하고 각각 거품을 낸다.
3. 냄비에 밥과 식빵을 넣고 올리브오일을 둘러 볶다가 물을 붓고 중간불에서 끓인다.
4. 밥알과 식빵이 풀어지면 계란흰자 거품낸 것을 넣고 젓다가 우유를 붓고 끓인다. 여기에 거품낸 노른자를 잘 섞어서 한소끔 더 끓인다.
5. 그릇에 계란 우유죽을 담고 땅콩가루와 시나몬 가루를 뿌린 다음 소금으로 간한다.

레시피 출처: CJ 알래스카 연어, 한국계란유통협회

이달의 정보

전난희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3급의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서비스 비용은 24시간을 이용하실 경우 월 228,000원이고, 27시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월 256,000원입니다(시간당 9,500원, 30분당 4,750원). 지원 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출처- <http://www.bokjiro.go.kr/>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을 희망하면,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 치료, 작업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도 교육청에 신청합니다.

출처- <http://www.bokjiro.go.kr/>

강북구 구석구석, 강북구 문화관광해설과 함께 하세요.

문화관광해설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이 해설 신청자분들과 직접 우리구 내 다양한 역사·문화 명소(현장)를 방문하고 설명해드리는 강북구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 관광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으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의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1. 프로그램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만 신청가능(유선신청 불가)
 - 해설희망일 최소 3일전 신청
 -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 강북구 문화관광해설
 - 강북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를 꼭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연락이 안되어 해설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소는 담당자에게 유선으로만 가능합니다.

2. 해설코스

- 1코스: 독립으로의 열망이 가득한 순례길
- 2코스: 민주화의 발자취를 담은 길
- 3코스: 북한산 소나무의 짙은 솔향기 가득한 길

3. 운영시간 : 오전10시, 오후2시

4. 해설인원 : 3명 이상 신청 시 해설사 배정(단체 시 10명당 해설사 1명씩 배정)

5. 이용료 : 무료(단, 교통비 등 별도 금액은 개인 부담)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강북구 문화관광해설' 코너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http://www.gangbuk.go.kr/www/contents.do?key=8547>

장애인파파라치

이하용



좁은 도보는 전동휠체어가 다니기 힘들다.



첫 번째 사진과 마찬가지로 좁은 도보는 전동휠체어가 다니기 힘들다.



창동역은 1호선으로 환승할 시 밖으로 나가 전동휠체어를 타고도



15분이나 가야만 한다.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힘들다.

이별휴가

순하재

울고 싶은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일상을 지내는 건
너무 큰 고통이다.
슬픔에 오롯이 직면하지도 못한 채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쳐야 하다니.
홀로 있을 수 있는 밤이 된 후에야
몰아서 이 때가움을 맞자니
어둠이 여간 두려운 게 아니다.

15년 10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두용 김용자 김은순 김석현 김중민 김종환 김현실 김태환
권윤정 곽삼봉 곽광현 박계형 박시연 박원배 박민숙 박동열 배소영
손연숙 이광섭 이승준 이영석 이영숙 이영훈 이지숙 이태연 이하용
안병훈 임상욱 우의정 오재준 윤두선 예성호 장민정 전난희 정주영
정종남 최윤숙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한일국제세미나 “지적장애인과 자립생활” 참석 안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5년 12월 11일(금) 오후 2시, ‘한일국제세미나 지적장애인과 자립생활’을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15년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자립생활의 방향과 일본 및 국내의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개최 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세부사업명 : 한·일 국제세미나
- 사업 일시 : 2015년 12월 11일 14~17시
-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 패 널 :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야스이(일본 피플퍼스트 아이치
활동가, 지적,신체,언어장애인당사자),
우희재(아름다운행동CIL, 지적장애인당사자)
- 좌 장 :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 상 :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관련단체 및 사회복지 종사자
- 인 원 : 100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906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